

# 백성 먹여 살린 남녘 ‘벚골’의 젓줄... 농경문화 자산



##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12>

제3부 - 토종과 자연이 빛나는 향토사

④ 호남평야를 지켜온 김제 벚골제

노성태 광주시·전남도교육연수원 강사

### 벼의 고을 ‘벚골’에서 유래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흔히 호수(湖)의 남쪽이란 뜻으로 금강 이남을 가리킨다. 금강의 옛 이름이 호강(湖江)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제 벚골제를 호수로 보고 그 이남을 말하기도 한다. 삼국시대 ‘호수’로 불렸던 3대 저수지로는 김제 벚골제,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지를 들지만, 단연 으뜸은 김제 벚골제였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흘해이사금 21년에 “처음 벚골제를 열었는데, 그 둘레가 1800보(步)이다”라고 하여, AD 330년 신라에서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4세기 무렵 김제가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고려하면, 신라가 아닌 백제 11대 비류왕 27년(330)으로 보아야 옳다. 백제 구수왕 9년(222) 2월조에 “유사에게 명하여 제방을 쌓게 했다”라는 기사로 미루어, 백제 지역에서는 이미 이른 시기부터 제방이 널리 축조되고 있었음을 그 증거다.

‘푸른 벼의 제방’이라는 한자 이름을 지닌 ‘벚골제’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백제가 이 지역을 통합하기 전 김제는 마한 54개 소국 가운데 가장 넓은 벚비리국이었고, 마한이 백제에 병합된 뒤로는 벚골군(淸骨郡)이 된다. 이때의 지명 ‘벚골’을 저수지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재미난 유래도 있다. 김제는 벼가 많이 생산되는 고을이라고 해서 ‘벼의 고을’ 즉 ‘벚골’이라 불렀는데, 한자로 옮겨지면서 ‘벚골’이 되었다고 한다. ‘벼 고을의 뜻’인 셈이다.

그런데 벚골제 이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전설도 전한다. 벚골제를 쌓을 때 매번 조수가 밀려와 그동안 쌓은 제방을 망쳐놓곤 했다. 어느 날 공사 감독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벚골, 즉 푸른 벼를 흙과 함께 섞어 제방을 쌓으면 공사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그래서 벼가 푸르다는 말뚝을 갈아 흙과 함께 섞어 쌓아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실제로 말뚝에는 인 성분이 많아 푸른색을 띠며 아교와 같이 물질을 응축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 호남평야를 적시다

벚골제는 최초 뿐 아닌 규모면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삼국사기에는 벼의 길이가 ‘1800보’라 하고 있고, 태종실록에는

벚골제의 상징인 쌍룡 모형. 지난 2007년 대나무 수만 개를 엮어 만든 쌍룡은 각각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면서 마주 보는 형상을 하고 있다. 벚골제에는 제방을 허무는 용에게 목숨을 받쳐 이를 지켜냈다는 ‘단야농자 설화’가 전해지며 매년 지평선 축제 때에는 이 설화가 놀이로 재연된다. <필자 제공>

‘7196척’, 동국여지승람에는 ‘6만843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를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삼국사기는 약 3245m, 태종실록은 3362m다. 1975년 유적 발굴 당시 실측 결과 제방 길이는 3300여m였다.

제방 길이만 3000m가 넘고 저수지 둘레는 40km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럼, 벚골제에 가득 담긴 물이 적셔준 호남평야는 어디까지였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벚골제 중수비에는 “다섯 개의 도랑을 파서 눈에 물을 대는데, 눈은 무릇 9840결(結) 95복(卜)이다. 물을 대는 도랑은 5개가 있다.

그 첫째 도랑을 수여거(水餘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 물이 만경현의 남쪽에 이른다. 둘째 도랑을 장생계(長生渠)라고 하는데, 두 줄기 물이 만경현의 서쪽에 이른다. 셋째 도랑을 중심거(中心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 물이 고부의 북쪽 부령의 동쪽에 이른다. 넷째 도랑을 경장거(經藏渠)라 하고, 다섯째 도랑을 유통거(流通渠)라고 하는데, 둘 다 한 줄기 물이 인의현의 서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중수비의 다섯 수로가 미치는 방향과 범위를 통해 유추된 벚골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제방 서쪽의 김제, 만경 남서부, 부안 동부, 고부 그리고 태인 서부 일대로 추정된다. 이는 오늘날 호남평야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너무 규모가 커 문제였을까? 한때 학계에서는 저수지인지, 방조제인지 놓고 열띤 논쟁이 일기도 했다.

벚골제 축조 이후 몇 번에 걸쳐 중축이 이루어진다. 통일신라 원성왕 6년(790), 고려 현종, 고려 인종 21년(1143) 때에 걸쳐 쌓

았고, 조선 태종 15년(1415)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태종대의 벚골제 중수는 중수비에 의하면 옥구진 병마사 김훈과 경양방 죽을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제군수 김방의 감독하에 군 장정 1만 명과 전문가 100명이 동원되어 한 달 만에 완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벚골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수한 지 불과 5년 만인 세종 2년(1420)에 대풍우를 만나 무너졌고, 제방 아래의 수전 2000여 결이 유실되는 대 손실을 입기에 이른다. 이후 벚골제의 복구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양론이 제기되었지만, 세종 10년(1428)에 벚골제 폐지를 공식 선언한다. 벚골제의 존폐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국가적 차원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규모의 벚골제가 4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제 강점기인 1925년 동진토지개발조합에 의해 농업용 간선수로 개조되면서, 오늘 벚골제는 그 원형마저 잃어버렸다.

### 호남인 농경 DNA 일깨워

세월은, 인간은 무서운 파괴자였지만 모든 흔적을 다 지울 수는 없다. 2.5km가 넘는 제방, 다섯 수로 중 하나였던 장생거와 경장거, 그리고 1415년의 중수를 기록한 중수비가 남아 있다. 1800년을 버티고 견뎌낸 벚골제의 문화원형이다. 그 문화원형에는 정해진 형과 이후 강제로 끌려간 장보고 관련 인물들의 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친구 현덕에게 “호남은 국가의 보장이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것이다.”라는 편지를 쓴다. “호남은 국가의 물적 기반이니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독 위에 올라 바라다 본 지평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끝없이 펼쳐진 호남평야의 위용은 정말 대단했다. 그것은 국가의 물적 기반이 되었고, 호남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다.

벚골제가 품었던 호남평야의 지평선과 장생거 등의 문화 원형은 벚골제 축조시에 만들어진 단야 농자의 설화가 전승된 쌍룡놀이 등과 함께 지평선 축제로 거듭났다. 지평선 축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농경 축제에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

호남인들의 몸속에 꿈틀대는 농경 DNA와 국가의 물적 기반이 된 김제 벚골제가 갖는 문화원형은 호남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빛고을역사교사모임 회장  
-교육과정 심의회 역사분과 위원  
-광주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 전라도 들여다보기

#### 고산 윤선도와 부용동

김형주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는 조선 중기의 관료이자 문인으로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18세에 진사초시(進士初試)에 합격한 후 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이첨(李爾瞻)·박승종(朴承宗) 등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다. 이로 인해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됐다. 그곳에서 ‘견회요’(遣懷謠)와 ‘우후요’(雨後謠)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이듬해 경상남도 기장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1628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해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스승이 됐다. 1633년 증광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다 1635년 억울한 누명으로 파직되었다.

이후 보길도에 은거하다, 1638년 국왕에 불충한 죄로 경상도 영덕으로 귀양갔다가 풀려난 후 다시 돌아와서 10여년을 한가하게 전원생활을 즐겼다. 이 시기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金鎖洞)의 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즐겼다. 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산중신곡’(山中新曲)·‘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고금영’(古今詠)·‘증반금’(贈伴琴) 등을 지었다. 그 뒤 1651년에는 정선적 안정 속에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詩)를 지었다.

다음해 효종의 부름으로 예조참의가 됐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의 고산(孤山)에 은거했다.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夢天謠)는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1657년 71세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송시열(宋時烈)과 맞서다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 무렵 ‘시무팔조소’(時務八條疏)와 ‘논원두표소’(論元斗杓疏)를 올려 왕권의 확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예문문제(禮論問題)로 서인과 맞서다가 삼수에 유배됐다. 1667년 풀려나 부용동의 낙서재에서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636년에 윤선도가 보길도에 정착하면서 거처한 집과 그에 딸린 정자와 연못 등을 조성하면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 양식을 따르고 있는 부용동원림이 탄생하였다.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제주로 향하던 중 이곳의 절경에 매료되어 머물면서 별서(別墅)를 짓고 여기에 정원을 꾸민 것이다.

고산은 보길도의 산세가 피어나는 연꽃을 닮았다하여 부용동이라 하였다. 그는 섬의 주봉인 격자봉 밑의 낙서재를 거처로 삼았는데, 아담한 3채의 기와집을 중앙과 좌우에 짓고 기거하였다. 그는 삶을 마칠 때까지 보길도의 곳곳에 세 연정, 무민당, 곡수당, 정성암 등 모두 25채의 정자와 건물을 짓고 자신만의 낙원인 부용동 정원을 일구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부용동 정원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거처하는 살림집인 낙서재(樂書齋)와 그 맞은편 산 중턱의 휴식 공간인 동천석실(洞天石室), 그리고 부용동 입구에 있는 교유의 공간이라 할 세연정(洗然亭) 일원이다.

이처럼 고산은 당쟁으로 소란스러운 세상과 초연하여 자신이 만든 별천지 낙원에서 마음껏 풍류를 누렸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들의 소박한 생활을 배워가면서 학처럼 고고하고 여유로운 생을 살다 갔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 혜은이 디너쇼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